

미얀마문화원 · 현대불교신문사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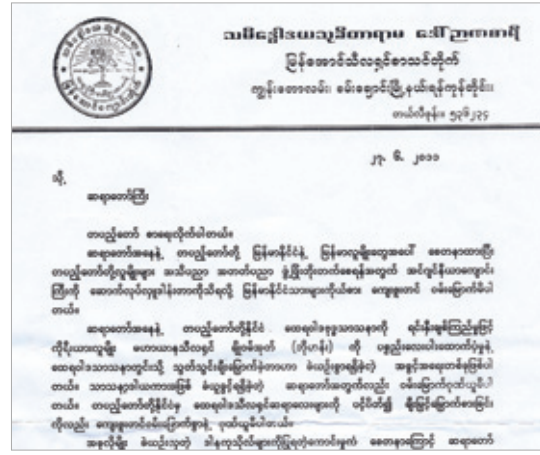
우물 하나로 한 마을 사람을 모두 살립니다

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식수개발, 우물 관리법 전수 등 자원봉사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현대불교신문사는 미얀마 현실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1년 3월부터 미얀마 붓다 지원 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를 진행하고 있다. 캠페인 일환으로 미얀마문화원 소속 붓다자비봉사단은 불자들의 성원과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현지 극빈지역 마을에 우물을 비롯한 식수 개발을 실시하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앞으로도 미얀마 후원에 관심있는 불자와 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모금된 후원금은 미얀마 양곤에 건설 중인 종합기술대학 건립과 극빈지역 공동우물파기, 극빈지역 고아원 및 학교, 불우가정 지원, 미얀마 신병의식(재가출가식) 등에 사용된다. 특히 미얀마문화원 붓다자비봉사단 현지 방문으로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후원: 예금주)국제불교지도자협회 농협 301-0016-0537-01 (02)733-5670



흘라잉따야 마을의 열악한 환경



미얀마 승가회 중정 우-꾸마라 스님의 감사편지



순수함을 간직한 인간존지 마을 주민들



미얀마문화원(원장 목탁)과 수질전문가를 포함한 붓다자비봉사단 10여 명이 8월 27일~9월 1일 미얀마 흘라잉따야 지역을 비롯한 극빈지역을 방문해 식수개발에 착수했다. 붓다자비봉사단은 흘라잉따야 지역은 마을은 크지만 우물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특히 오염된 식수는 각종 수인성 질환을 유발해 이 지역 아동 사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런 미얀마 극빈마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얀마문화원은 1998년부터 우물파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50여 곳에 우물파기를 진행했다. 붓다자비봉사단은 한 지역에 우물을 하나를 파면 아이들 1000여 명이 혜택을 입는다고 설명했다. 붓다자비봉사단은 우물 착공과 함께 초등학교도 건립해 문맹 퇴치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붓다자비봉사단의 활동에 미얀마 중정 우-꾸마라 스님은 편지를 보내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미얀마 우물파기 운동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미얀마문화원과 현대불교신문사의 공동 캠페인으로 후원자들의 정성을 모아 우물파기 운동은 ▲극빈층이 모여 살고 특히 아동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주변에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 ▲각 가정마다 주 소득원이 일용직 근로를 하여 발생하는 곳. ▲수도권 외곽 지역으로서 정부의 복지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아동들이 수인성 질병을 많이 앓고 있는 곳.

우물 1개소 사업비는 지하수를 끌어 올리는 깊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US \$1,200~\$1,500이 소요됩니다.

우물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후원자님들께서 매달 후원해주시는 후원금과 우물 개발에 단독으로 참여하시는 후원자님들의 후원금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자비 보시행을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우물 하나 파면 수천명의 생명을 구해

이번 봉사활동의 목적은 극빈마을에 식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전 조사였다. 봉사단은 그동안 우물을 개발해 기증한 마을을 방문하여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오염이 되지는 않는지를 측정했다. 특히 이번 봉사단 일행에는 수질전문가가 함께 동행해 우물 관리법을 전수했다.

자비봉사단은 먼저 한국기술종합대학이 건립되고 있는 흘라잉따야의 극빈지역을 방문했다. 항상 그렇지만 방문하는 지역마다 죄송스러울 정도의 환대를 받는다.

흘라잉따야의 모습은 미얀마 수도인 양곤 인근 지역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마을을 지나는데 짐집마다 큰 드럼통이 몇 개씩 있는 것이다. 어떤 드럼통인지 궁금해 확인한 결과 비가오면 그 빗물을 받기 위한 통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빗물을 받은 물로 먹고 씻는 등 모든 생활을 한다고 했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마을을 둘러보니 초라한 오두막은 돼지우리과 같이 붙어있었고 아이들은 그 우리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다. 이 곳에서는 아이들보다 돼지가 더 대접받고 있었다. 돼지 한 마리가 한 가정의 전 재산인 정도였다.

이 지역 아이들은 수인성 질병 외에도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불교사에서 제공하는 기초교육에 근근이 의지해 글씨만 깨우치는 실정이다. 한국기술종합대학교가 빨리 완성돼야 함을 느꼈다.

기본적인 삶의 터전 제공하는 불자 돼야 봉사단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얀마 밍갈라동시에 있는 평간준지 마을로 이동했다. 이 지역은 광장기 습한 지역으로 인근에는 농장들이 많았다. 마을 주민들은 농장의 일용직 잡부로 일하고

있었다. 농장의 주인들은 이 지역이 아닌 수도 양곤에서 산다고 한다.

대규모 농장으로 인한 배설물로 마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었다. 방문했을 당시에는 우기철이었다. 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 발목까지 진흙에 덮여있었다. 신발이 진흙 속에 잠겨 걷는 것을 포기할 지경이었다. 평간준지 1호 우물을 설치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간준지 마을은 지표 오염이 심하게 우물 착공시 100미터 넘게 파내려가 펌프를 사용해야 물을 길 수 있었다. 이들의 임금은 하루 일당이 2000원 정도다. 우물이 설치 되기 전에 이들은 물을 사먹었는데 5리터에 200원 정도였다. 씻는 물조차 쓰기 힘든 실정이었다.

평간준지 마을에서 한 아이가 다가와 머리와 팔을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마을에서 깨끗한 물로 씻고 마시고 해서 머리와 몸에 있던 부스럼이 사라졌다는 감사를 표했다. 무엇인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벅차올랐다.

미얀마는 원래 농촌 지역이 많아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이 지천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평간준지 마을처럼 대규모 농장이 들어서며 미얀마 환경은 심각히 오염되고 있다.

이런 피해는 농지를 잃고 일용근로자로 전락한 극빈층 농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오고 있다. 사회에서 고통받는 이들, 이런 농민들에게 직업학교의 기술 교육과 우물파기 등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일이 불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최정연(42 · 붓다자비봉사단 회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들의 이음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병 출가식 지원

신병은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병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